

## [ 종합·해설 ]

■ 한 선대위 공식 출범 광주·전남 표심공략 전략

## 한반도 대운하 등 집중 부각

주제 강연·당원교육 실시…지역현안 대선공약화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지역선대위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 인 표심공략에 나섰다.

전남도당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세차례로 나눠 권역별 당원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29~30일에는 이명박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대선 편승 결의대회'를 갖고 세분화된 지역공약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선대위 분과위 등 하부조직 정비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부인인 김윤옥씨도 북지사장을 방문하는 등 측면 지원활동을 펼친다.

전남도당은 16일 오후 1시40분 순천 동부웨딩홀에서 도당 당직자와 여수·순천·광양·구례·고흥·보성지역 당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당원교육을 실시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박석준 이화여대 교수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전여옥 의원은 '왜 한나라당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이 후보의 부인 김윤옥씨는 당원교육에 참석한 뒤 아동복지시설인 SOS 어린이마을을 방문, 이동들을 격려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씨의 전남 방문은 지난 7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직전 비공개 방문에 이어 두 번째이다.

전남도당은 또 오는 24일에는 나주

에서 중부권 당원들을, 다음달 2일에는 목포에서 서부권 당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오는 29일과 30일 이명박 대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각각 '대선 편승 결의대회'를 갖고 주요 지역 현안의 대선공약화를 꾀할 방침이다.

박재순 전남도당위원장은 '연말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당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의 추진방향과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고 대선 과정에서 당원들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경준씨 귀국 저지' 공방 가열 국회 파행

## 신당 "李측 방해 정황 속속 드러나"

## 한나라 "돌연 귀국 보이지 않는 손 작동"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은 15일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된 BBK 관련 핵심인물인 김경준씨의 귀국 문제를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이 김씨의 귀국을 방해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올렸고, 한나라당은 김씨의 돌연 귀국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맞불을 놓았다.

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BBK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귀국을 두고 이명박 후보가 앞뒤에 안 맞는 얘기를 한다"면서 "TV토론에서는 (이 후보가) '김경준씨가 빨리 귀국해 재판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민사소송에 대한 추가 증언이 필요하다면서 (김씨의 할소포기 요청에 대한) 판결유예 요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쪽에서는 들어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와 한나라당은 뭐가 뒤가 구려서 그려는가"라고 공격했다.

그는 "김경준을 불러오는 것이 우리측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정말 정치 공작이면 귀국을 시켜서 따지면 될 것이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국회에서 깨내지도 못하게 사건건 막고 있어서 상대 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를 배반해 어딨어, 이처럼 지독한 자기중심적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 "(미국에서 진행중인) 민사재판에서 김씨가 자신을 증인으로 신문해달라는 신청을 한 상황에서 김씨측 변호인만 신문을 하고 절차가 끝나, 그 절차를 완료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나 대변인은 "김씨가 느닷없이 항소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씨가 3년 동안이나 미국 내 구치소에 잡혀있으면서도 한국에 돌아오기를 끼웠다는 것은 한국에 온다면 종종 쳐벌을 받을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주

장했다. 한편 국회는 일남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간 대립으로 이를째 파행 운영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신당이 정무위에서 채택한 BBK 주가조작 관련 국감 증인들을 원천 무효화하고 공식 사과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는 방침을 고수한 채 상임위 회의 등 모두 불참했다.

반면 신당 측은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통외통위 전체회의 등을 단독으로 열었지만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정상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한나라당을 비난하는데 주력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최성 의원이 15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BBK 관련 해외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경선 중지 가치분' 기각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박정현 부장판사)는 15일 민주당 조순현 의원과 신국환, 장상 후보 등이 당내 대선후보 경선의 불법·탈법선거 논란과 관련해 경선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상대로 낸 경선절차 중지 가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전북지역 경선에서 1만7천여명의 당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누락됐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당 전북도당이 선거인 명부에서 당원 2천690여명이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그 중 비당원 등을 제외한 1천649명에 대해 우편투표를 실시한 점, 신청인들의 주장대로 위 2천690여명이 부당하

게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전북지역 경선 투표율, 각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자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하자가 전북지역 경선 자체를 무효라고 할 만큼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늘 개성공단 1단계 사업 준공식

한국토지공사는 개성공업지구 1단계 조성공사 준공식을 16일 개성공단 내 만남의 다리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준공식은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통일부와 현대아산이 후원하며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국회 김원웅 통일부

## 정부, 이행기획단 첫 회의서 정상선언 후속조치 논의

2007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학자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2월 초에 북측과 별도 회담을 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7시 정부중앙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2007 남북정상선언이행 종합기획단'(이하 이행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선언 이행 방안을 본격 논

의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이관세 통일부 차관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12월 초에 여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이행기획단 산하에는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

부처들이 참여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태스크포스(TF)도 설치됐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총리회담에서 북측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종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3개 회담을 11월 내에 모두 완료,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틀을 갖춘 뒤 12월에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지 않고 청진디지털 기술로 듣는 편리합니다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bogcheonggi.com

1588-8499 080-222-0100

## 현장과 시각

광산업 홀로서기 준비를



이종태

경제부 차장

지난 2000년 출발한 광주광산업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내년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2009년부터 3단계 사업에 돌입한다.

2011년까지 3개년간 투입될 정부예산은 5천억원 규모로, 이 예산을 마지막으로 광산업은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이제 1·2단계 사업을 통해 축적된 인

프리를 충분히 활용, 핵심기술을 확보해 광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광주광산업은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물론 일부 업체들의 가슴픈 좌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연 매출 100억원대의 스타기업들이 이들이 충분히 활용하기도 했다.

광관련업체는 1999년 47개에서 지난해 말 273개로, 고용창출 또한 4천393명으로, 매출액은 6천393억원으로 불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10여개에 가까운 광관련 지원기관이 광주에 자리잡아 연구개발 불모지가 가깝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도 일조했다.

그러나 갈 길은 아직 멀다. 광산업이 지역민을 먹여살리는 협력업체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자면 지속적인 국가지원을 끌어내고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등을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이 만들여져야 한다.

주안구 광주광산업대표자협의회장은 "대부분의 광관련 업체들은 영세한 중소·벤처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생산설비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가가 지원해줘야 한다"면서 "특히 기술보증기금의 시설·운영자금 지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신제품 상용화 지원제도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해 시장현황 및 경쟁구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목표고객 선정과 밀착영업을 통한 안정적인 판매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개척보다 실현성을 중시한 시장현황 파악과 계획적인 임대고객 개척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전영복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우리의 광산업은 미국·일본 등의 기술과 중국의 가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주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원가 절감에도 계획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산업이 변신을 해야 때리는 얘기다. 외부지원에만 기댈 게 아니라 내부역량을 모아 '홀로서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3일 광주시 첨단단지와 생활공원에서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올해로 세번째 맞는 '광산업의 날' 행사였다. 광기업체 및 지원기관 임직원 등이 연구실과 생산현장을 벗어나 체육대회와 장기 자랑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날이었다.

'광산업의 날'이 지역민의 진정한 축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jtlee@kwangju.co.kr